

인민공사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책으로 읽는 중국현대사

“1966년 문화혁명 시절, 천안문은 마오쩌둥 주석의 거대한 천연색 초상화로 뒤덮였으며, 100만명이 넘는 홍위병이 그 광장에서 사열했다. 마오주의 벽보가 하나둘씩 떨어져나가던 1970년대 말엽이 되자 새로운 시위대가 천안문과 마오쩌둥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기념관 사이에 모여 정부의 사상과 시위 탄압에 항거했다.” 조너선 D. 스펜스 《천안문》(이산)

그리고 1989년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천안문 광장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 곳의 조명을 모두 꺼버린다. 76년 제1차 천안문 사태가 결과적으로 마오쩌둥 사후 ‘작은 거인’ 덩샤오핑의 입지를 강화시켰다면, 89년 제2차 천안문 사태는 덩샤오핑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 사건에 충격 받아 평생 중국만을 연구한 스펜스는 《현대중국을 찾아서》(이산)라는 방대한 저서를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인민이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근대 중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 18년, 천안문 사태, 덩샤오핑

현대 중국 관련 출판이 활발해진 것은 따지고 보면 덩샤오핑의 신외교전략 덕택이다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이영주 지음, 나남출판). 전임자 마오쩌둥과 달리 경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덩샤오핑과 한국의 실리외교는 1992년 8월 마침내 정식 국교수립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이에 따라 80년대 탄압의 대상이 되던 ‘중공’ 관련 서적들의 출간이 잇따르게 됐다. 국교 수립 당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덩샤오핑에 관해서는 셋째딸인 덩잉의 《나의 아버지 덩소핑》(삼문)을 비롯해 10여종의 평전이 나왔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베일 속에 가려졌던 마오쩌둥을 다룬 《모택동의 사생활》(고려원) 등이 부정적인 시각인 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책이 많다.

6월 4일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10주년 이 됐지만, 근래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라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룬 책은 나오지 않았

다. 대신 중국의 근현대사적 전통에서 천안문 사태를 바라본 《현대중국을 찾아서》, 경제개혁과 보조를 맞추려는 정치개혁의 좌절로 보는 히메다 미쓰요시 등의 《20세기 중국사》(돌베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서구기자의 시각으로 사태의 추이를 기록한 해리스 E. 솔즈베리의 《새로운 황제들》(다섯수레) 등에 단편적으로 실려 있을 뿐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중국정부가 이 사건을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89년 정치풍파로 한걸음 물러선 상태다.

반면 중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문화혁명에 대한 평가는 마오쩌둥이 죽던 76년, 장칭 등 4인방이 구속되며 곧바로 시작됐다. 치우란과 김중수·최건이 각각 지은 《중국 당대문학사》(고려원, 청년사)와 김한의 《중국 현대소설사》(문학과지성사) 등은 모두 49년 정부수립 이후 중국당대문학사에서 문화혁명 기간을 문화의 쇠퇴기로 본다. 지나친 공식화와 개념화가 문예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 따라서 문화혁명이 막을 내린 76년 이후 유심무의 《학급담입》을 필두로 문화혁명 당시의 비참함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쏟아지기 시작해 ‘상흔(傷痕)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국내에는 장시엔리양의 《남자의 절반은 여자다》(새문문화사), 다이호우잉의 《시인의 죽음》(다섯수레), 라오꾸이의 《불타는 영토》(친구), 안치민의 《붉은 진달래》(세종출판공사) 등이 문화혁명기를 다룬 소설로 출간됐다. 장시엔리양은 노동개조를 받는 장용린이 돌보던 거세마의 말을 통해 문화혁명기의 중국인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거세되는 게 너의) 운명이라구. 자네의 신념, 이상, 야심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고 너

를 괴롭히는 악귀일 뿐이야.”

한편 소동, 여화 등 문화혁명이 끝난 뒤 작품활동을 시작한 제4세대 작가의 작품도 많이 소개됐다. 이들의 작품은 장예모 감독이 ‘홍둥’(소동, 오늘), ‘인생’(《살아간다는 것》) 여화, 푸른숲) 등으로 영화화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다. 최근 출간된 여화의 《허삼관매혈기》(푸른숲)는 문화혁명 등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피를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허삼관의 삶을 그려 당시 중국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90년대 중국인의 관심사인 금전과 사랑, 성 등을 소재로 한 조매의 《낭원》(다모아), 95년 5월 북경시 교외에서 시체로 발견된 부시장 왕보삼을 둘러싼 천광의 정치소설 《천노》(조선일보사), 천안문 사태를 전후한 중국현대사를 소설로 그린 정의의 《소설 중국》(동연) 등도 최근 중국인들의 생활상과 관심사를 잘 알 수 있는 소설들이다.

개혁개방이 궤양인지, 社씨인지 묻지마라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던 1992년 1월, 88세의 고령이던 덩샤오핑은 심천의 경제특구 등 남방시찰에 나선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힘입어 80년대부터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해 그대로라면 2050년 GDP는 6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공산당 제14회 대회는 정치개혁을 요구한 천안문 사태를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했지만, 개혁개방을 늦출 수는 없었다. 덩샤오핑의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상세히 소개한 중국역사유물주의학회 위음의 《21세기 중국의 도전》(매일경제신문)은 덩이 남순강화에서

〈연표와 함께 읽어보는 중국현대사 관련서〉

문 학	중국현대사 개설서 · 20세기의 중국(서울대출판부) · 중국현대문학의 세계(현암사) · 중국현대사의 이해(중문출판사) · 중국현대정치론(나남출판) · 현대 중국교육의 심층적이해(문음사) · 중국의 개혁개방사(신서원)	· 남자의 절반은 여자다(새문문화사) · 시인의 죽음(다섯수레) · 붉은 진달래(세종출판공사) · 허삼관매혈기(푸른숲) · 사랑이여, 안녕(빛샘) · 불타는 영토(친구) · 덩링(다섯수레)	· 물위의 연가(빛샘)	· 소설 중국(동연)			
	인 문	· 현대 중국의 생활문화(한림대출판부) · 중국현대 문학 개론(신아사) · 중국현대 문학 산책(신아사) · 현대중국정치(부산대출판부) · 현대 중국의 리얼리즘 이론(창작과비평사) · 현대 중국의 모색(동녘) · 현대중국여성사(정우사) · 중국현대사의 이해(한국의대출판부) · 오늘의 중국방송(나남) · 중국현대작가론(은누리), 중국현대사(서문당) · 소설로 보는 현대중국(교보문고) · 현대 중국의 여성(한울)	· 문화대혁명 전후의 중국역사해석(집문당)	· 중국기행(푸른숲)			
경 제		· 모택동을 알면 중국이 보인다(유레카미디어)	· 등소평시대의 중국경제(비봉)	· 코카콜라병에 빠진 중국(자작나무)			
1949	58	62	1966	72	1976	81	86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대약진운동 시작 인민공사설립	《인민일보》 중소분화 시인	문화대혁명 시작	닉슨대통령 방중	조우언라이·마오쩌둥 사망 4인방 체포	제11기 6중전회 마오쩌둥 정책비판	학생운동 전국적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

진압과 포용의 이민족 정책

중국의 소수민족

중화인민공화국이 인정한

55개 소수민족 가운데는

1천만명이 넘는 집단도 있고

1500명도 채 안되는 작은

민족도 있다. 강력한 소수민족

정책을 편 결과, 티베트를

제외하면 중국미래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듯 보인다.



구주지방의 성성한 마오족 아가씨들. 사진제공/중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은 총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과 국가가 인정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뤄졌다. 소수민족 중에는 1천만명이 넘는 집단도 있고 1500명도 채 안되는 작은 민족도 있다. 그 중 인구 1백만명을 초과하는 소수민족은 좡·후이·위구르·이·먀오·만주·티베트·몽골·투차·부이·조선·둥·야오·바이·하니 등이다. 또 이들이 거주하는 내몽골·티베트 등 5개의 민족자치구와 약 600개의 자치현은 전국토의 62.5%에 달한다.

원래 이들은 동이(東夷)·남만(南蠻)·서융(西戎)·북적(北狄) 등으로 불렸고 그 명칭에도 개견(獫狁)이나 벌레충(虫)변을 사용한 글자가 많아 한족에게 멸시되던 민족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장정 시기 소수민족 거주지구 실패전문을 통해 피차 별민족해방의 긴요성이 대두돼 신중국의 민족정책 안으로 포용됐다.

그러나 '민족문제의 실질은 계급문제'라는 3중전회 이래의 기본입장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계급문제가 우선이었고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은 탄압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가 마오쩌둥 재평가가 시작된 80년대 초반부터 좌경화된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하고 '평등·단결·상호협조'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소수민족 문제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중국의 소수민족사에서 가장 먼저 자치구가 된 티베트를 빼놓을 수 없다. 1949년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본토를 장악한 중국공산당은 이듬해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3백만 티베트 인민을 해방시키고 중국의 서부 변경에 대한 방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진군을 지시했다'며 2~3만명

에 달하는 군대를 라싸에 진주시켰다.

티베트인들이 '누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문을 가진 것은 당연했다. 50년대, 티베트자치구를 구성하려는 북경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티베트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59년 자신을 둘러싸고 티베트인과 중국군대간의 충돌이 벌어지기 직전, 달라이 라마는 노르부링카 궁전을 빠져나와 인도로 망명하고 중국군은 무력으로 티베트의 독립요구를 늘렸다.

지금은 중국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독립운동이 널리 알려졌지만, 다른 소수민족 역시 중화의 강요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 역시 반란과 진압의 역사를 지녔다. 종교지도자 마명심이 등장하며 시작된 이들의 저항은 1862년 대봉기로 이어졌으나 청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다. 이런 반란의 역사는 몽골족이나 위구르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강력한 소수민족 정책을 편 결과 티베트를 제외하면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황하에서 천산까지》(김호동 지음, 푸른숲)에 실린 다음과 같은 라미승의 절규는 이 문제가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외몽골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중국인과의 전쟁을 택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도 내몽골과 같은 운명으로 북경에 종속되고 말겠지만, 외몽골이 남쪽의 형제들을 노예로 만듦으로써 그 대가로 자유를 사느니 차라리 몽골인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싸우다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김연수)

행한 "개혁개방이 궤변인지, 사기인지 묻지 마라", "시장은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세임을 밝힌다. 북경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개혁개방의 기수인 소작기 역시 《중국경제의 야망》(매일경제신문)에서 "시장경제는 가장 우수한 자원배분의 방식이며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자동메커니즘이고 가치평가의 객관적인 표준이 되며 우수한 것은 장려하고 열등한 것을 배척하는 강제수단"이라고 말해 중국의 선택이 시장경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수교 이후 쏟아져 나온 《중국-10년후의 거대소비시장》(대외투자개발원), 《21세기 초강대국 중국》(문화일보), 《초강국으로 가는 중국》(일리엄 오버홀트 지음,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등 수백권에 달하는 중국경제관련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염두에 둔 시장분석과 예측을 담았다.

하지만 중국의 미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미국의 시각. 박정동의 《21세기 중국》(한국경제신문)에 소개된 1995년 미국 방성의 보고서는 덩샤오핑 사후 7년 동안의 중국미래를 현 노선유지·자유로운 개혁·분열로 설정하고 그 가능성을 각 30%·20%·50%로 내다봤다. 《폭발하는 중국 시장 경제의 미래》(영인문화사)를 쓴 니콜라스 R. 라디 역시 21세기 중국의 미래는 국제규범에 맞는 정치체제의 수립에 달려 있다고 말해 개혁개방에 걸맞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서방의 시각을 담았다.

서구의 견해가 독특한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불안감을 나타낸다면, 중국인 스스로의 견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라는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21세기 중국 문제는 결

국 정치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덩샤오핑 이후의 지도자인 장쩌민과 주룽지의 정책을 분석한 책도 많이 나왔다.

《장쩌민과 신중국건설의 청사진》(동방미디어)을 쓴 류지 등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중국으로서 가장 큰 정치적 현안을 "당원과 간부집단의 사상정치적 소양 및 그와 연관된 간부제도"로 봐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쩌민 역시 중국의 장래를 "등소평 동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을 지도로 삼아 사회주의 시장경제조건에서 현대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택민과의 대화》, 중국사회과학원 편, 지식공작소). 이런 인식하에 《21세기 중국대예측》(비엔미디어)에 기고한 중국학자들은 장래를 장미빛으로 내다본다.

《주룽지》(생각의나무)를 쓴 주젠룡은 개혁이 좀더 진행되면 현실주의적 개혁을 주장하는 주룽지 등 개혁파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공산당간의 모순이 표면화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내다봤듯이 주룽지 등의 경제개혁은 장기적으로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나토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과 관련해 일어난 반미 분위기는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21세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중국인의 자신감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동방미디어)을 쓴 송창 등 젊은 세대의 강력한 목소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연수 기자

	· 낭윈(다모아) · 천노(조선일보사)		
개	·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따님)	· 21세기 중국사회의 전망(주류성)	· 강택민과 중국정치(문원)
산	· 중국의 개혁(21세기 북스)	· 등소평 사후 중국의 장래와 한반도(이사연)	· 등소평 사후 중국의 장래와 한반도(이사연)
레	·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21세기 중국은 무엇을 꿈꾸는가?(지정)	· 21세기 초강대국 중국(문화일보)
	· 중국의 광고(나눔출판)	· 21세기 중국(한국경제신문사)	· 주룽지(생각의 나무)
	· 중국인의 교섭술(대외투자개발원)	· 강택민 시대의 중국(엘지경제연구소)	· 중국경제전망1999(대외투자개발원)
	· 두 개의 중국과 실리외교(자작아카데미)	· 중국전시회1999(대외투자개발원)	· 중국통계연감1998(대외투자개발원)
	· 90년대 중국경제와 2000년의 탐색(대우출판사)	· 폭발하는 중국 시장경제의 미래(영인문화사)	· 중국가이드1999(인민중국출판사)
	· 중국탐색 88~94(지식산업사)	· 중국의 신 지하경제(대외투자개발원)	
	· 우마차 타고 핸드폰 든 중국(소나무)		